

# 건설사 실적 전망 ‘무난’... “현금성 자산 감소 눈여겨보아야”

삼성물산·DL이앤씨 ‘양호’  
GS건설·대우건설 등 ‘부진’  
“주가, 지방 주택시장에 달려”



최근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현대건설을 시작으로 건설사들의 실적 발표 기간(어닝 시즌)이 시작됐다. 현대건설이 예상보다 좋은 ‘깜짝 실적(어닝 서프라이즈)’을 내놨지만 건설사 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지난 19일 1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오는 24일 삼성물산, 26일 GS건설, 다음달 2일에는 DL이앤씨가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1분기 매출액 8조5453억원, 영업이익 25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7%, 44.6%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2013억원보다 25%나 늘었다.

현대건설은 주택 부문의 실적이 견조했고, 파나마 메트로 3호선과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사우디아부라 가스처리

시설 등 해외 대형현장의 공정이 가속화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와 삼성물산도 실적 전망이 양호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DL이앤씨는 1분기 매출 1조9454억원, 영업이익 9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 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물산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추정치는 10조3573억원, 65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 2%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GS건설과 대우건설 등은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GS건설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5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2% 감

소할 것으로 보이며, 대우건설 역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1.4% 감소한 1388억원으로 추정됐다.

실적과 함께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현금성 자산이 감소했는지 여부다.

조정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분양 물로 계약한 2021, 2022년에 착공한 사업장의 준공이 올해 중·하반기로 대거 몰려들어 1분기 건설사들은 대부분 현금성 자산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2월 기준 입주율이 수도권 83.1%, 지방 중·소도시 68.2%로 지방 노출도가 높은 중·소형 건설사의 경우 유동성 우려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 역시 1분기 순현금이 9000억원으로 작년 말 2조3000억원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현대건설도 절대적인 이익규모는 기대치를 상회했지만 이익률은 영업이익 기준 2.9%로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며 “주택시장

의 불확실성이 원가를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를 동시에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건설사들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 경기 침체와 원가율 부진·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우려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20개 건설사의 PF 보증액은 작년 말 기준 약 30조원으로 전년 대비 15.6% 늘었다.

건설업종지수는 지난 주말 기준으로 1년간 13% 하락했다. GS건설 주가가 34.1% 내려 하락폭이 가장 컸고,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도 각각 15.7%, 13.8% 하락했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건설사가 전반적으로 무난한 실적이 예상된다”면서 “실적보다는 건설업을 발목 잡는 지방 주택시장의 회복 여부가 주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임금근로자 10명 중 1명 월 100만원도 못 벌었다

통계청 2023년 하반기 고용조사  
근로자 20% 월급 200만원 미만

월급 100만 원을 채 타지 못한 근로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9.2%를 차지했다. 또 근로자 5명 중 1명은 월 200만 원 미만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 201만 원(시간급 9620원)이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임금근로자 2208만2000명 중 203만 명이 월평균 임금으로 100만 원 미만을 받았다. 이는 전년 동분기(198만 명)에 비해 5만 명 늘어난 규모다.

또 100만~200만원 미만이 254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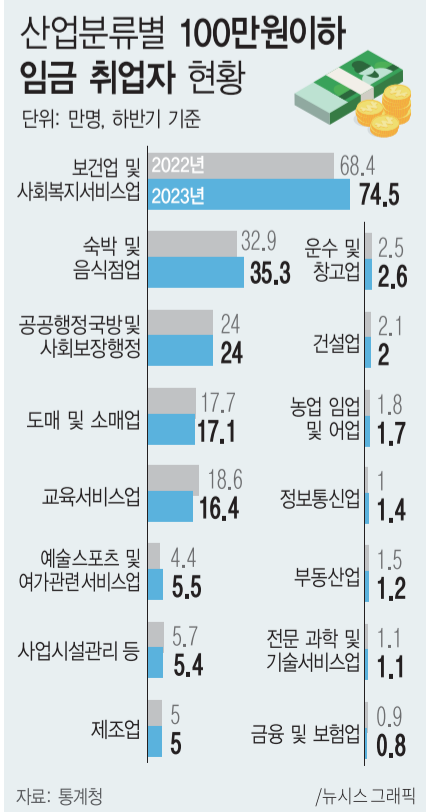
1000명(11.5%)이었다. 이로써 200만 원 미만이 20.7%에 달했다. 이어 200만~300만 원 미만이 732만1000명(33.2%), 300만~400만 원 미만이 474만7000명(21.5%)으로 집계됐다. 월급을 400만 원 넘게 타간 근로자 수는 544만3000명(24.6%)으로 4명 중 1명이었다.

다만 100만~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2.7% 감소했다. 200만~300만 원 비중도 0.6% 줄었다. 이에 반해 300만~400만 원과 400만 원 이상은 각각 0.7%, 2.5% 증가했다.

17개 산업 대분류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월평균 100만 원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 수가 74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이 35만300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두 업종이 100만 원 미만(203만 명) 근로자의 절반을 넘었다. 이 밖에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24만 명), 도매 및 소매업(17만1000명), 교육서비스업(16만4000명) 순으로 월 100만 원 미만의 저임금 일자리가 많았다.

400만 원 이상(544만3000명) 받은 근로자 가운데 대부분은 관리자, 전문가 등으로 종사하고 있었다. 관리자가 38만6000명,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206만1000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어 사무종사자(158만 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53만6000명),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46만1000명), 판매종사자(19만5000명), 서비스 종사자(17만7000명) 순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100만~200만 원은 단순노무종사자·서비스종사자 등에서 구성비가 높았고 400만 원 이상은 관리자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만 풀체인지?”

# 이제 운전자보험도 풀체인지

**NH다이렉트운전자보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강화되는 교통법규에 맞춰  
특약과 보장을 확 넓혀 운전자를  
더 든든하게 지킵니다

**보장은 더 크게, 특약은 더 넓게 NH다이렉트운전자보험**

**[운전자 과실실 책임 보상]**  
해당 특약 가입 시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악화상태에서 운전은 제한

**[비운전자까지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납입면제]**  
단,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담보 제외

**[보험료 할인]**  
NH협업금융  
ESG 캠페인 시약시 2%

www.nhfire.co.kr  
1644-9000

**NH협업손해보험**